

굴 산업의 현황과 전망

굴수하식수산업협동조합 상임이사 이 종 훈

우리나라 굴 산업은 1960년대 국가적인 어업인소득증대사업과 국가 경제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대규모의 정부투자등으로 발전하였으며 특히 1973년 한·미 패류 위생협정체결로 남해안 일대가 FDA 지정 수출용 패류생산해역으로 지정되므로써 세계 25개국에 생굴, 냉동굴 및 굴 통조림등을 수출하여 연간 1억 2천만불 이상의 외화를 획득하여 왔으나 중국산 굴 수출 및 주요 수입국들의 수입규제강화로 최근 들어 수출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.

굴 수하식어업은 남해안 일원을 중심으로 839건, 5,016ha의 굴 면허에 상시종사인원 20,000여명이 종사하고 있으며, 특히 경남도의 경우 전국 생산량의 85%를 차지하여 생산, 가공, 수출, 유통, 운송, 기자재생산의 중심지로서 지역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.

또한 연인원 400만명의 고용효과 및 노동임금 1,000억원의 환원으로 남해안 일대 지역경제를 좌우하는 중요한 산업으로 자리잡고 있으나 최근 들어 해양환경변화에 따른 비만도 저하 및 잦은 폐사, 인력난, 굴 패각 처리비용 증가, 양식기술 발달에 따른 과잉생산, 휴식년제등 어업권 제도 문제와 수입국들의 위생강화등으로 인하여 굴산업이 대내외적으로 난관에 부딪혀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.

앞으로 굴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 환경오염 및 생산량이 저하된 어업권중 희망자에 한하여 어장 휴식년제 실시, 비효율적인 어장청소주기 조정, 어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면허처분권 중앙기관 이관 방안, 해역별 적정생산을 위하여 기존 어업권의 매입 축소 방안 및 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어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어업권의 물권 존속등의 어업권 제도개선을 통한 대내외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.